

##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감사주일:** 오는 30일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 ② **선교학교:** 선교학교가 은혜 중에 개강했습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 선교의 역사 강사: 변영우 전도사(주님의 교회 시무) 일시: 매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Chapel Room
- ③ **감사:** 중 고등부 수련회에 학생들을 섬겨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④ **기도:** 기섭 형제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⑤ **모임:** 다음 주 1부예배 후 각 남녀 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 ⑥ **교육:** 1부 예배 후 세례자를 위한 예비교육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 ⑦ **장터:** 이번 주 갈보리 장터는 6인용 식탁입니다. (사진 참조, 치수: 90cm x 167cm 높이: 74cm)
- ⑧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⑨ **월례회:** 3남, 2여 선교회 월례회가 각각 있습니다.

## 갈보리 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NIBC(한동대 선교단체)

### 국내 선교지

- ▷밀알장애우 봉사

## 10월 교회 일정

### 선교 학교 개강:

10월 6일 (매주 목요일)

### 중고등부 수련회:

10월 14일(금) - 15일(토)

### 감사주일, 세례식

10월 30일 (주일)

## 단기 선교 훈련 일정

	강의 주제	강사
10/06	개강예배/ 바누아투배우기	이태한 목사
10/13	선교와 세계관	배형근 강도사
10/20	선교의 역사	변영우 전도사
10/27	선교사의 삶과 비전	선우형식 목사
11/03	예배와 영적전쟁	토우마다 선교사
11/10	단기선교의 이해	이태한 목사
11/17	선교와 기도	안광국 목사
11/24	바누아투 배우기/종강예배	진혜령 전도사

## 10월 예배 기도자 및 안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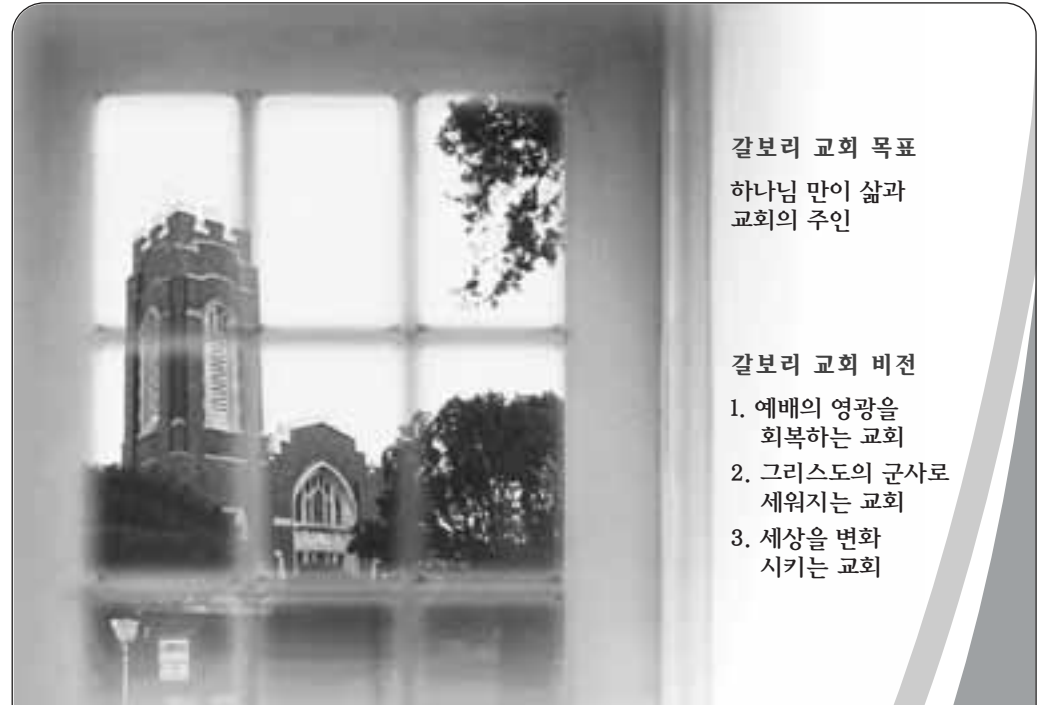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안내
2일	박병민	조은유	신미숙	최재학/노은숙
9일	최득수	김성희	정덕수	최재학/노은숙
16일	유승재	김정민	김교섭	심경순/김광자
23일	정관영	이예슬	심경순	심경순/김광자
30일	이광희	장연식	안재현	심경순/김광자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기섭 형제의 혈소판과 당노 수치 등 여러 장기가 항암 주사에 약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음식물 섭취로 균형있는 영양이 몸속에 축적되도록.
2. 기섭이를 비롯한 가족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을 극복하도록.
3. 골수이식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혹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면 그 진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4. 사업, 직장, 비자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함이 있도록.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개강한 선교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선교와 신앙에 유익한 학교가 되도록. 강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도록.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장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휴무장로	: 김영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지휘	: 윤형권
반주	: 송민영, 유지선



##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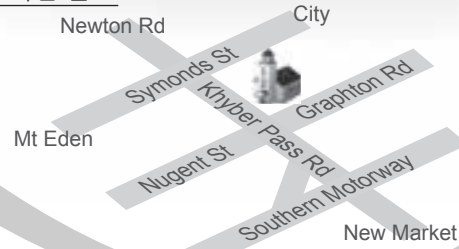
##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 찾아오시는 길



##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1:00PM 본당	유아부	주일 1:00PM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3:00PM 본당	아동부	주일 1:00PM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7:30PM 본당	중고등부	주일 1:00PM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5:50PM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10월 16일

주보 13권 42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로마서 12:1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8장	다함께
*성서교독	72. 이사야 58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91장	다함께
대표기도	유승재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3:11-18, 25-26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생명의 주, 그 이름 예수	이태한목사
찬송	435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 순서 안내 | 다음 주 기도: 정관영장로 10월 30일: 이광희장로

건축 헌금 | 지난 주 헌금: \$210.00 총계: \$599,915.19

## 주일2부예배

오후 3시	청년찬양단		다함께
찬양	김정민집사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사도행전 26:12-18	인도자	
설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심창진목사	
찬송	아바 아버지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 주 기도: 이에슬자매

## 성서교독 72. 이사야 58장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려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지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방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때때론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같이)너는 물 든 등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수요찬양단		다함께
찬양	김교섭장로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사사기 3:7-11	인도자	
설교	사사 웃니엘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358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 애찬 기도: 정덕수장로  
다음 주 기도: 심경순집사

## 갈보리 칼럼

### 침묵 속에 숨은 사랑

일본어를 모를뿐더러 일본 소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번역된 일본 소설조차도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이 쓴 기독교 신앙 소설은 몇 권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신자였던 엔도 슈가쿠가 쓴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침묵’ 등입니다. 그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은 17세기 에도막부 시대의 기독교(정확하게는 천주교) 박해를 다룬 소설입니다.

서구 문물의 유입과 함께 들어 온 선교사들의 활약으로 당시 일본 내에는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수십만에 이르는 기독교인을 확보하였지만, 정치적인 변화와 외세에 대한 경계의 목적으로 에도막부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배교를 거부하거나 기독교인임을 드러낸 이들은 잔혹한 고문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시기에 로드리고와 또 다른 신부가 순교할 각오로 일본 땅을 밟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선교 중에 결국 발각되고 로드리고 신부는 농민 신분인 기독교인들이 잔혹한 고문 속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종교를 저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교 본부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순교를 사모하면서 자원하여 일본에 간 신부가 예수를 부인하고 종교를 배반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른 신부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로드리고 신부의 배교의 진상이 밝혀집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선교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못마땅히 여기던 그 마을의 영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다가 신부에게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과 마

을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 영주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책을 밟고 지나갈 것을 말합니다. 선택해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는데 책에 그려진 예수님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립니다. “밟아라. 밟아. 나는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침묵하고 있던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결심하고 고통 속에서 성화를 밟습니다. 그래야만 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타인의 행위를 보면서 그럴 수 있나 주먹을 쥐고 자신은 의로운척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야만 했던 숨은 형편의 진실이나 의미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빌라도를 향해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주님의 침묵은 결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웅변이었습니다. 주님의 침묵에는 엄청난 사랑의 함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그 몸이 찢김을 당하고, 다시 능욕을 받으시더라도 주님은 “밟아라, 밟아.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침묵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도 침묵하십니다. 당신이 짊어지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책망이나 야단을 치시지 않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말입니다.

- 이태한 목사